

콩으로 심은 희망, 아프가니스탄에서 싹트다



권순영 영양과 교육 인터내셔널 대표는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을 위해 단순한 식량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자립의 토대를 마련했다. 콩 농장에서 농부들과 함께(오른쪽에서 두 번째).

콩 재배법을 전수하며 18년간 그들의 영양 개선과 자립에 기여해왔다.

고민보다는 행동으로

식품 영양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목표로 고려대 농예화학과를 진학한 권순영 대표는 뉴질랜드 정부초청 연수생 선발 등을 통해 우유가공 전문 지식을 축적했고, 1976년 정부에서 지원하는 해외유학의 기회를 잡아 미국에서 학업을 이어갔다. 오하이오주립대학에서 식품생화학 박사 학위를 1982년 취득한 권 대표는 낙농식품연구소 시험생산실 책임자를 거쳐 1986년 다국적 식품회사 네슬레로 자리를 옮겼다.

콩을 원료로 한 영아용 대체 분유 등을 개발하는 연구원으로 일했던 권순영 대표는 2000년 초 임원으로 승진하며 능력을 인정받았고 의료, 영양, 식품 분야에서 특허권 13개를 보유하며 실력 있는 전문가로 자리매김했다.

권순영 대표가 아프가니스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1년 9.11테러 발

생 직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지상군을 투입하며 관련 보도들이 연일 쏟아질 때였다.

아프가니스탄 영유아 사망률 1위의 원인이 영양실조라는 사실에 식품영양학자로서 책임감을 느꼈던 권 대표는 고민을 거듭하다 2003년 5월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했다. 뉴스보다 더 참혹했던 현지 아이들의 상황을 목격한 권 대표는 영양실조로부터 이들을 구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직감했다.

세계적인 식품회사 네슬레의 임원으로 승진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던 50대 무렵, 권순영 대표는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 받는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을 보게 됐다. 권 대표는 어린 시절 6.25 전쟁을 겪으며 어려운 이를 돕겠다던 오래된 다짐과 식품영양학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슴에 품고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했다.

이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 '영양과 교육 인터내셔널(NEI, Nutrition & Education International)'을 설립한 권 대표는 전쟁과 기아로 고통 받는 아프가니스탄 현지 주민들을 위해

단백질이 풍부한 콩, 영양 개선의 해법이 되다

권 대표는 현지 의과대학의 요청으로 '건강과 영양'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샘플로 가져간 유제품과 콩제품을 선보였다. 시음한 현지 전문가들의 반응도 괜찮았다. 영양학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 '콩'이 기아 해결에 해법이 될 수 있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아프가니스탄은 광활한 영토 국민의 9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기후조건도 한국과 비슷했다.

"가능성만 가지고는 일을 추진할 수 없었다"는 권순영 대표는 미국으로 돌아와 NEI를 설립했다. 혼자 힘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아프가니스탄 방문 때는 권순영 대표의 뜻에 동참하겠다는 미국의 콩 관련 전문가들이 너도 나도 힘을 보탰다.

미국에서 가져간 6종의 콩 종자는 아프가니스탄 12개 지역에서 시험 재배에 들어갔다. 그중 2종이 2005년 시험재배에 성공했다. 아프가니스탄 농축산부의 지원도 본격적인 콩 재배를 가능하게 했고, 한국 정부도 다양한 콩 종자를 지원해주었다. 2011년부터는 종자 수입 없이도 현지 수급이 가능할 정도로 콩 재배 산업이 자리를 잡았다.

식량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자립의 토대를 만든다


콩 시험재배 성공 후 16년이 흐른 지금, 아프가니스탄 전체 34개 주 중 31개 주, 12만 5천여 명의 농민들이 NEI의 교육을 받고 콩 재배에 참여하고 있다. 초기 40톤에 불과했던 콩 생산량도 6천 톤으로 증가했다.

'지속가능한 콩 가치사슬 개발'을 사업 운영의 기본 방침으로 세운 NEI는 생산, 소비, 판매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가고 있다. 2008년부터 농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해 콩 가공산업에 필요한 공장을 꾸준히 설립했고, 2016년에는 실온에서 10개월가량 보관이 가능한 멸균두유 생산 공장을 완공함으로써 더욱 많은 현지인에게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콩 식문화 조성도 확산에도 뛰어 들었다. 현지인들의 주식인 밀가루 빵 '난'을 반죽할 때 콩가루를 10% 첨가하는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보급함으로써 식어도 촉촉하고, 단백질이 풍부한 '소이 난' 식문화 전격적으로 확산시켰다.

사회공헌 사업도 함께 전개했다. NEI는 2015~2018년 '희망의 콩

청소년 클럽'을 운영하면서 소외지역 청소년들에게 농업, 지역사회 봉사, 스포츠 활동의 기회를 제공했다. 여성들에게는 콩과 콩가루 판매 기회를 지원하고, 콩 종자 지원과 재배법 전수 등을 통해 15개 지역 1천여 명의 여성 농민의 콩 재배를 도왔다. 더 나아가 콩 재배 과정에서 나온 부속물을 양계 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양계 사업을 지원하는 등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자립에도 힘을 보탰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내 불안한 정세 속에서도 권순영 대표와 NEI의 활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난민촌 무료 급식 등을 통해 어려운 현지 주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이어가는 중이다.

권순영 대표는 콩 산업 구조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판단해, NEI가 주도해오던 사업 권한을 2019년부터 현지인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양해오고 있다. 작은 '콩'을 매개로 아프가니스탄을 일흔 번 넘게 오가며 단순한 식량 지원을 넘어 하나의 산업을 만든 NEI 권순영 대표. NEI는 소수정예의 봉사자들로 움직이는 작은 단체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일과 꿈꾸는 목표는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글 이지연

식품분야 전문가인 권순영 대표는 단백질이 풍부한 콩이 아프가니스탄의 영양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두유 공장 가동을 앞두고 점검 중인 권순영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

